행복한 오늘, 미래 여는 성장한 복지 실현 앞장

2025년 새해 고창군이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장애인복지 혜택 확대, 노인 돌봄 서비스 강화를 비롯해 기부와 나눔 문화를 활성화하며, 더욱 성장한 복지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2025년 고창군 사회복지 정책을 살펴봤다. /편집자 주

사회복지종사자 활력수당 확대
기준 중위소득 전년비 6.42% 인상
3741개 노인일자리 사업 시행
장애인일자리 사업 등도 확대

▲사회복지종사자의 열정에 힘을 더하다… 활력수당 확대와 상해보험료 지원

고창군은 올해부터 사회복지종사자 활력수당을 근무환경이 열악한 현장중심의 종사자들에게 확대해 지급한다. 전일제 근무자(연 10만원)에게만 지급했던 활력수당을 반일제 근무자(연 5만원)까지 확대하여 지급한다.

또한 상해보험료 지원으로 종사자들이 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해사고로 인한 의료비용 등을 보장해준다. 고창군은 종사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통해 복지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기부와 나눔 활성화로 희망을 나누고, '같이의 가치'를 실현하는 자원봉사 활성화

고창군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모금된 성금을 공동모금회를 통해 고창군 저소득층을 위해 활용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 명절 및 동절기 취약계층 지원 등 이웃돕기를 실천하고 있고, 푸드뱅크를 통한 기부식품 제공으로 지역사회 복지향상과 나눔문화를 확산하고 있다.

올해는 노인일자리사업 등으로 활동 영역을 확장하며, 맞춤형 전문봉사단 운영, 이동세탁·목욕 지원,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지역 내 온기를 전하고 있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생계, 의료급여 제도 개선으로 복지향상 기대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609만원으로 확정돼, 전년 대비 6.42% 인상됐다. 생계급여 기준에서는 차량 환산 기준이 1,600cc 미만에서 2,000cc 미만, 차량 가격은 200만원에서 5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됐다.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연소득 1억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 초과에서 각각 1.3억원, 12억원으로 조정되며, 조사 기준과 실생활 간 격차를 완화했다. 신설된 재가의료급여사업으로 의료·돌봄 통합서비스가 제공되고, 의료급여 건강생활유지비도 월 6,000원에서 1만2,000원으로 증액되어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이 기대된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확대 실시

고창군은 2025년부터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1개소에서 2개소로 확대 실시한다. 전북 군단위 중에서는 유일하게 2개소에서 사업을 진행하여 더 많은 군민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보건복지부 주관 시범사업으로 장기요양 재가급여 대상자(1~5급) 중 거동이 불편하고 재택의료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재택의료팀(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이 월 1~2회 방문해 방문진료·간호, 기타 돌봄서비스 연계, 정기적 모니터링 등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는 대산연합의원(563-5639), 현대의원(563-6035)에 상담 받으면 된다.

▲빛나라 청춘… 노인일자리사업 확대 시행

고창군은 어르신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3,741개의 노인일자리 사업을 시행한다.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고창시니어클럽 외 4개소의 수행기관에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중이며, 2025년부터 경로당 급식도우미 지원, 복지보안관 등 958개의 일자리를 확대하여 어르신들의 사회적 고립을 해소시킬 예정이다.

▲어르신의 안전 지킴이… 응급안전안심서비스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확대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서비스로 화재·질병 등 응급상황에 신속 대응 가능하며, 올해 스마트워치 160대를 추가 설치해 총 1,298가구를 지원한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34억의 예산으로 2,310명의 어르신에게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하고. 생활지원사 150여명이 방문해 말벗 및 안전확인을 지원하며, 중점돌봄군에 대한 돌봄시간을 월 20시간으로 확대한다.

▲장애인에게 더 많은 기회를… 장애인일자리사업 및 발달재활서비스 대상 확대

고창군은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 제공 및 소득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시행한다. 2025년도는 전년(2024년) 대비 5명이 증가해 총 66명이 복지행정업무 지원, 권익옹호 등 다양한 일자리에 참여한다.

2025년부터 장애 미등록아동의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연령이 6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상향된다. 장애아동 및 미등록아동은 간소화된 절차로 언어, 미술심리, 행동발달 등 맞춤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가족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적기에 돌봄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심덕섭 군수는 "고창군 복지 정책은 사회적 약자와 취약 계층을 포함한 모든 군민이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촘촘히 설계돼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복지 정책을 계속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